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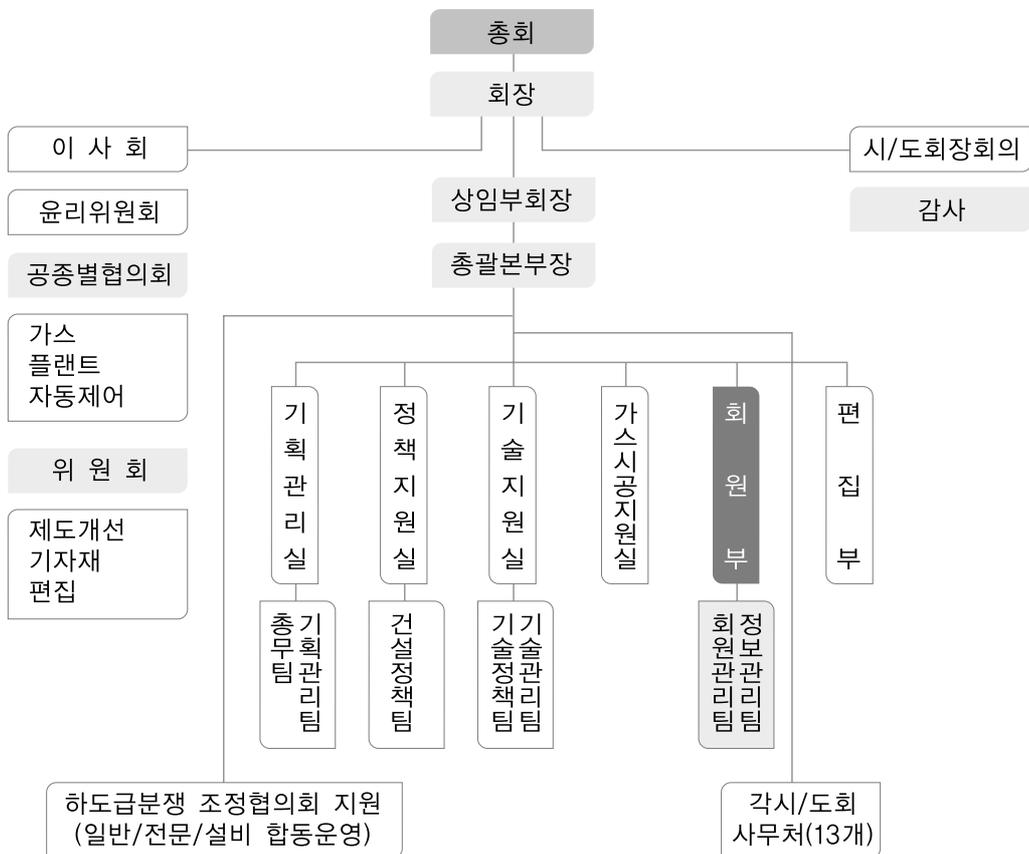


정부위탁업무의 『시공능력평가공시』 및 적격심사 평균비율 발표 등 회원봉사를 최우선으로 -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원부 -

대한설비건설협회 본회는 건설진흥사업 외에 기술·가스진흥사업, 회원봉사 및 조사사업, 정보화 사업, 기획·관리사업, 홍보사업 등 다양한 사업활동을 함으로써 설비건설업계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해 12월호부터 전국 13개 시·도회를 대표하여 설비건설업계의 발전 및 위상강화, 회원사의 권익보호 등을 추진하고 있는 본회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정부위탁업무 「시공능력 평가공시」 및 적격심사 평균비율 발표 등 회원봉사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부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조직도





□ 정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회원부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회원사(기계설비공사업자 및 가스시설시공업자)의 품위유지 및 상호협력 증진과 권익 보호를 도모함으로써 건설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원부는 협회 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회원사의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협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시공능력평가·공시』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평가에 적용되는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산정, 발표하는 등의 업무 특성상 회원사와 매우 밀접한 공조가 이루어지는 부서이다.

□ 시공능력평가·공시

‘시공능력평가·공시’는 발주자가 적절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설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품질관리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58년 5월 건설업법으로 제정되었으며, 1961년 5월 ‘도급한도액제’에서 1997년 8월 ‘시공능력공시제’로 발전했다. 이후 △실적평가 △경영평가 △기술평가 등의 반영비율이 조정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시공능력평가공시를 수행하고 있는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원부는 회원사로부터 매년 2

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동안 건설공사 실적신고를 접수받고 그 이후 4월 15일까지 재무제표를 접수받아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산정하여, 매년 7월 1일에 확정, 발표하고 있으며, 7월 31일에는 협회 정보통신망을 통해 최종적인 시공능력평가를 공시하고 있다.

□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균비율 발표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원부에서는 기획재정부 회계에 규 적격심사기준과 관련하여 회원사의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산정해 발표하고 있다. 정부위탁업무 수행도 중요하지만, 건설공사 실적신고 자료를 토대로 발주기관별 경영상태 평균 기준에 적용되는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균비율 산정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다. 회원부에서는 업체에서 제출한 재무제표 자료를 토대로 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산회전율을 산정, 발표해 조달청 및 행정자치부 등 전국의 모든 발주기관에서 적용토록 하고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홍보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 중 부실 건설업체 및 하도급 위반업체를 조사하여 행정처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원부에서는 건설업 등록기준 및 하도급 위반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홈페이지 및 월간「설비건설」지를 활용해 홍보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각종 공문을 회원사에 보냄으로써 회원사가 행정처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1997년 8월 ‘시공능력공시제’에서 규정한 <시공능력평가액>

시공능력평가액 = ① 공사실적평가액 + ② 경영평가액 + ③ 기술능력평가액 ± ④ 신인도평가액

□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대한건설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는 서면조사와 건설공사현장 직접 조사로 이뤄지고 있다. 이는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 조정시 전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토록 하기 위한 일환으로, 회원부는 기계설비관련 직종(배관공 외14개 직종)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현실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매년 2회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되고 있는 임금실태조사에 대해 협회 회원부는 많은 회원사와 긴밀한 업무협조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 설비건설업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통계법 제4조1항에 의거, 1993년 12월 29일자로 '설비건설업통계조사'에 관한 통계작성기관으로 승인(제36901호)되어 설비건설업체의 계약실적, 기성실적 등을 공종별, 계약방법별, 공사규모별 등으로 분류해 통계를 내고 있다. 결산된 자료를 바탕으로 발간되는 『통계연보』가 경영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회원부에서는 회원사·유관기관 및 발주처 등에 이를 제공하고 있다.

□ 회원명부 발간

회원부는 매년 시공능력평가 공시 후 회원사의 기본사항과 시공능력평가액 및 시공능력순위가 수록된 『회원명부』를 발간, 전국의 회원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발주관서 등 관련단체에 배포하고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원사의 시공능력 정보가 원활히 공유되어 차후 발주자의 적절한 공사업자 선정은 물론 회원사의 공정한 입찰기회 확보 등을 위해 『회원명부』 발간 및 배포 업무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관리·운영

회원부의 전산팀에서는 1997년 10월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이후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오고 있다. 이전까지 오프라인 상에서 서류 중심·수작업 형태로 이뤄지던 업무를 전산으로 발전시켜, 단일 시스템을 공동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온라인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해 등록업체에 대한 일련현황, 행정처분, 공사실적, 시공능력평가, 경영상태 평균비율 등 모든 자료를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은 서류 간소화 및 각종 정보의 신속한 열람 등 신속·정확한 업무처리 구현에 큰 몫을 했다. 이러한 데이터는 통계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건설산업정보센터 등에 제공해, 통계행정과 관련한 설비건설업계의 업무역량을 보여주고 있으며 위상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회원부는 전국 시·도회를 대표하여 중앙에서 종합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협회 회원사는 물론 각 시도회 전산업무까지 빠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인터넷 증명서 발급

정부에서 추진하는 건설행정 글로벌화에 발맞춰, 회원부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증명서발급시스템(2006년 구축)과 실적신고시스템(2008년 구축)을 개설해 온라인 증명서 발급 및 실적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써 회원사는 통합적인 현황파악과 실적신고는 물론 각종 증명서 발급까지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 없이 회원사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효율적이고 정확한 업무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부는 회원사의 업무편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윤리위원회 운영

대한설비건설협회 윤리위원회는 설비건설업계의 윤리질서 확립을 위해, 업계 발전에 공적이 있는 회원에 대해서는 포상하고, 반면 업계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징계함으로써 설비건설업계의 품위보전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코자 설치되었다.

회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윤리위원회는 은근수 위원장을 포함해 총 8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년 정기·임시총회 및 건설단체총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건설의 날’ 행사의 포상대상자를 심의하고 있다. 윤리위원회가 심의하는 협회 및 정부 포상은 회원사의 사기진작은 물론 업계 전체의 위상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기타 일반업무

이밖에 회원부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건설산업정보센터,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등 관련단체와 업무 유대관계를 유지해 회원사의 권익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회원사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묵묵히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는 회원관리팀의 홍승택 대리과 전산시스템 개발을 주도하고 각종 서버 및 데이터 관리에 힘쓰는 정보관리팀의 이명식 과장, 그리고 회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문석주 부장 등 회원부의 모든 구성원은 회원사 및 각종 유관단체와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으며 끊임없는 회원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원부는 최일선에서 회원사의 유선 및 온라인, 혹은 내방을 통한 업무 처리 요청에 대해 신속·정확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놀라운 발견과 위대한 발명

전화기

1875년 그레이엄 벨은 전화기를 만들려고 실험하던 중 약품을 엮지르고 “웁슨, 빨리 내 방으로 올라오게!”라고 소리쳤는데 아래층에 있던 웁슨이 이 소리를 듣고 뛰어올라왔다. 이것이 바로 전화기가 발명된 순간이다.

그러나 처음 전화기를 본 기업들은 팔리지 않을 것이라며 전화기의 발명을 외면했다. 벨은 미국 독립 백년제를 기념하는 전람회에 전화기를 출품했고, 브라질의 페드로 황제가 관심을 가지자 심사위원들도 그제서야 관심을 갖고 살펴본 뒤 격찬을 했다고 한다.

사람들은 급한 일을 알려야 할 때 전화기가 유용하다는 것을 알고는 설치비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너도 나도 앞다투어 전화기를 이용했다. 전화기는 텔레비전 발명의 동기가 되기도 했다. 소리를 전달할 수 있다면 영상도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 발명가들이 텔레비전을 발명한 것이다.

뉴턴의 발견

영국의 과학자 뉴턴은 빛의 분석, 만유인력의 법칙, 미적분법을 발견했다. 1661년 케임브리지 대학에 입학한 뉴턴은 유럽에 페스트가 유행하자 고향인 울즈소프로 돌아갔다. 그리고 고향에서 1년 반 동안 지내면서 앞의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던 힌트를 얻었다고 한다.

그 가운데 만유인력의 법칙은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발견하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1687년에 발견한 만유인력의 법칙은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이 두 물체를 연결하는 직선의 방향으로, 그 크기는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법칙이다.

뉴턴의 조카딸이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유럽 대륙에 퍼지게 되었다고 한다.

「말랑말랑한 절대상식」 중에서